

오늘의 주요 언론보도

- 2026년 5월 14일 -



주요 기사내용		해당부서	보도매체
○	레드향·황금향 재배기술 교육-12면	서귀포농업기술센터	제주매일
○	[기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잇다(이봉실)-14면	동부농업기술센터	삼다일보
○	기타과수 판로 확대, 수도권 소비자 만난다-6면	-	제민일보
○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 사업 신청 접수-6면	-	제민일보
○	취나물 밭에 물 주는 농민-4면	-	삼다일보
○	제주, 마늘 수확철 연 4500명 인력 지원-6면	-	한라일보
○	감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15면	-	제민일보

(제주매일: 2026년 5월 14일)

○ 레드향·황금향 재배기술 교육-12면



레드향·황금향 재배기술 교육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현광철)는 지난 12일 센터 농업인교육관에서 농업인 100여명을 대상으로 '레드향·황금향 5월 핵심 재배기술 교육'을 실시했다. 5.14. 제주매일 12

(삼다일보: 2026년 5월 14일)

○ [기고] 품목농업인연구회,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잇다-14면

품목농업인연구회, 제주의 공동체 정신을 잇다

제주의 농업은 척박한 자연을 이겨내는 과정 속에서 공동체의 힘으로 이어져 왔다.

돌이 많은 밭을 일구고 바람을 막기 위해 쌓은 밭담은 혼자 힘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서로의 노동을 나누고 경험을 전하며 농사를 지어왔고 이러한 문화는 제주의 농업을 지탱해 온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오늘날 기후변화와 시장 환경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이러한 공동체 문화는 품목농업인연구회라는 형태로 이어지고 있다.

같은 작목을 재배하는 농업인들이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병해충 대응과 품질 향상 등 현장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연구회는 현장 중심의 학습 공동체로 자리 잡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에서 육성하는 9개



이봉실

제주도농업기술원
동부농업기술센터

연구회 193명의 농업인들은 이러한 변화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회원들은 재배기술을 공유하고 실증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며, 그 성과를 농업 현장에 확산시

키고 있다. 과거 밭담을 함께 쌓으며 축적했던 지혜처럼 연구회는 오늘날 기술과 경험을 나누는 핵심 기반이 되고 있다.

동부농업기술센터는 2026년 한 해 동안 연구회 활성화를 위해 실천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각 연구회별 '1연구회 1과제'를 선정하고 이를 현장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맞춤형 지도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연구회 활동의 ^{5.14.}실효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삼다일보 14

(제민일보: 2026년 5월 14일)

○ 기타과수 판로 확대, 수도권 소비자 만나다-6면

기타과수 판로 확대, 수도권 소비자 만나다

제주도는 블루베리와 키위 등 감귤 외 기타과수의 판로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기타과수 홍보·마케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지역 기타과수 재배면적은 2022년 550.8ha에서 2024년 930ha로 2년간 약 70% 늘었다.

기후변화에 대응한 작목 전환과 신소득 작물을 찾는 농가가 늘어났기 때문이다.

이에 제주도는 올해 1억원을 투입, 키위와 블루베리, 매실 등 18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도권 소비지 홍보

5.14.

제민일보 6면 비용을 지원한다.

또 출하 시기에 맞춰 온·오프라인 판촉 행사를 연중 추진한다.

우선 첫 행사로 오는 15일 서울 여의도 농협재단 빌딩 앞에서 제주산 블루베리 소비촉진 판매행사를 개최한다.

행사에는 농협경제지주 제주본부, 제주농협조합공동사법법인, 지역농협, 한국블루베리연합회 제주지부 등 생산·유통 관계기관이 참석해 블루베리 시식·시음회와 홍보 안내문 배부 등을 진행한다.

하반기에는 제주산 키위 출하 시기에 맞춘 판촉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두영 기자

(제민일보: 2026년 5월 14일)

○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 사업 신청 접수-6면

월동채소 수급 안정화 사업 신청 접수

제주도는 월동채소의 사전적 재배면적 조절을 위해 34억5500만원을 투입,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13일 밝혔다.

신청 기간은 오는 18일부터 29일 까지며 신청대상은 밭작물 제주형 자조금 회원이거나 지역 농협 계통 출하 실적이 있는 농업인이다.

최근 2년(2024~2025년) 이내에 월동채소(월동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를 재배했던 농지를 휴경하거나 메밀 등 지정 작물을 재배할 경우 ha당 최대 460만원까지 지원한다.

올해는 품목별 연합회, 농협, 제주농산물수급관리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전담팀(TF)을 구성하고 의견을 수렴해 사업 지침을 개선했다.

1년차 신규 신청 농지는 ha당 440만원, 2년차 연속 신청 농지는 ha당 460만원으로 인상했다.

또한 올해부터는 최근 2년 이내 1년 이상 월동채소 재배 이력이 있는
5.14.
제민일보 6 신청 가능하다.

농가의 대체작목 선택 다양화를 위해 트리티케일과 검정콩을 재배 지정 작물에 신규로 추가했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밭작물 토양생태환경보전사업은 농지의 생태보전과 월동채소 수급안정을 동시에 도모하는 핵심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농가 참여 확대를 위해 지원기준을 개선한 만큼 월동채소 재배 농업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고은리 기자

(삼다일보: 2026년 5월 14일)

○ 취나물 밭에 물 주는 농민-4면



5. 14.
삼다일보 4

취나물밭에 물 주는 농민 13일 오전 제주시 애월읍 애월리에서 한 농민이 스프링클러를 이용해 취나물밭에 물을 뿌리고 있다. 임창덕 기자 kko@samdailbo.com

(한라일보: 2026년 5월 14일)

○ 제주, 마늘 수확철 연 4500명 인력 지원-6면

제주, 마늘 수확철 연 4500명 인력 지원

고령농·장애농 등 우선 배정
공공형 계절근로사업 등 확대
올해 12만명 농촌 인력난 지원

제주특별자치도가 반복되는 마늘 수확철 농가 일손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연 4500명의 인력을 집중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도는 14일 서귀포시 대정농협 산지유통센터(APC)에서 영농 지원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일손 돕기에 나선다.

도내 마늘 농가는 고령화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특히 올해는 기상 영향으로 마늘 수확 시기가 예년보다 늦어지면서 단기적인 인력 수요가 집중됐다.

제주도는 공공기관, 농협, 군부대, 민간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가동해 전방위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발대식에서는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재확인하고, 현장 일손돕기 활동에 함께 나설 예정이다.

고령농, 여성농, 장애농 등 영농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실제 인력 확보 5,144은 농가를 우선 배정한다. 한라일보 6 이번 마늘 수확기뿐 아



지난해 추진된 마늘 수확철 농가 일손 돕기.

제주자치도 제공

니라 연중 농업인력 지원체계를 운영하며, 감귤(하반기) 등 주요 수확기에도 집중 지원하고 있다.

2026년 농업인력 지원 목표는 전년도 9만명에서 3만명이 추가된 12만명으로, 농촌 인력난 심화에 대응해 지원 규모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지난해 7개소에서 올해 8개소로,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6개소에서 10개소로 각각 확대하는 등 지원 규모를 지속 늘리고 있다.

또한 단순 일손 지원에 그치지

않고 농촌 현장의 인력 수요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며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외국인 계절근로자 등 관련 사업과 연계해 상시 대응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영준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농번기는 단기간에 많은 인력이 필요한 시기로, 현장 중심의 신속한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발대식을 계기로 일손돕기 참여 분위기를 확산하고,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오소범기자 sobom@ihalla.com

(제민일보: 2026년 5월 14일)

○ 감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15면

감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대책

제민포럼



김종우
비상임 연구위원

■ 고품질 중심 구조 개편

제주 감귤 산업의 활성화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품질 중심의 구조 개편'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다.

5. 14.
제민일보 15

제주 감귤 산업의 활성화는 단순히 생산량을 늘리는 것을 넘어 '고품질 중심의 구조 개편'과 '디지털 전환을 통한 시장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과 현장의 흐름을 바탕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5가지 영역으로 정리해 본다.

첫째, 고품질 생산 기반으로서의 체질 개선이다. 수입 과일과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맛'에서 압도적인 차별화를 선점해야 한다.

특히 토양피복 재배 확대는 고당도 감귤 생산의 필수 요소인 토양피복 자재와 점적 관수 시설 지원을 강화해 노지 감귤의 상향 평준화를 도모하고 있다.

원지 정비 및 품종 갱신은 작업 효율이 떨어지는 노후 과원을 정비하고 시장 선호도가 높은 신품종(미래향, 우리향 등)으로의 고집갱신 작업비와 유기질 비료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스마트팜 보급을 통해 기후 변화에 대응해 온도와 습도를 정밀하게 제어하는 ICT 기반 스마트팜 시설을 구축해 생산 단계부터 품질을 규격화해야 한다.

둘째, 유통 및 소비 시장 선진화를 이끌어 내야 한다. 생산된 감귤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통 단

계를 첨단화하고 브랜딩을 강화해야 한다. 스마트 APC(산지유통센터) 구축을 통해 AI 기반의 선별 시스템을 도입해 크기뿐만 아니라 당도, 산도, 내부 결함까지 실시간으로 파악해 소비자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

고품질 만감류 출하 장려는 미국산 만다린 등 수입 과일과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3월 이후)에 맞춰 고품질 만감류(한라봉, 천혜향 등)를 출하하는 농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 시장 가격을 방어할 수 있다.

'제주다움'을 담은 브랜딩을 통해 단순한 농산물 판매를 넘어 농장의 스토리와 라이프스타일을 결합한 마케팅(지자체 브랜드 활용)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다.

셋째, 수출시장 다변화 및 해외 공략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내 시장 포화 상태를 극복하기 위해 해외 판로를 적극적으로 개척해야 한다. 아세안 플러스 알파(+α) 정책으로 기존 러시아, 북미 중심에서 벗어나 동남아시아 및 중동 지역으로 수출국을 다변화 해야 한다. 수출 전용 단지 육성은 해외 시장의 잔류농약 기준 등에 맞춘 수출 전용 단지를 지정·관리해 검역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넷째, 농가 노동력 부족 및 생산비 절감이다. 고령화된 농촌의 현실을 반영해 생산 비용을 낮춰야 한다. 농작업 기계화 지원은 드론 방제, 중·소형 농기계 보급, 2분의 1 간벌 등을 통해 기계가 들어올 수 있는 과원 환경을 조성해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 방풍수 정비 사업은 햇빛 투과를 방해하고 작업 동선을 가로막는 방풍수를 제거하고 파쇄하는 비용을 지원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다섯째, 디지털 농업 전환 및 데이터 활용이다. 농가 맞춤형 데이터 서비스는 기상 상황, 병해충 발생 예측, 적정 수확 시기 등을 데이터 기반으로 농가에 실시간 제공해 고품질 생산과 유통 판매에도 큰 기여를 한다. 현재 감귤 산업의 활성화는 '양보다 질'로 완전히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다.

특히 고령 농업인에게는 기계화와 스마트 장비 지원이, 젊은 경영인에게는 디지털 마케팅과 데이터 농업 지원이 집중되는 추세다. 정부의 FTA 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지자체별 추가 신청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지원 혜택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새한국새농민 제주도회장>